

어선협회 창립과 현황

한 국 어 선 협 회
기획관리부장 홍 석 규

1. 설립경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안에서 노나 돛을 이용한 소형어선으로 어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어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어선의 형태와 크기도 다양해지고 먼 바다로 진출하게 되면서 해난사고 예방이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76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 사이에 속초, 주문진, 울릉도 소속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동해 대화퇴 근해에서 조업 중 폭풍과 삼각과도에 60여척이 조난을 당하여 58척이 침몰, 반파되면서 어민 349명이 실종 또는 사망한 해난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수산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해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선의 건조, 관리, 성능향상 등 어선관련 업무를 수산행정에 일원화시킬 필요

성을 느끼고 국무총리로부터 어선검사업무를 대행할 민간기구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1977년 10월 4일 “어선법”을 입안하여 11월 8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동년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1일 법률 제 3063호로 “어선법”이 공포된 것이다.

수산청에서는 1978년 10월 5일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실무요원들은 수산청 어선과에서 준비작업을 시작, 정관을 비롯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과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을 초안하는 등 기본적인 준비작업과 아울러 본부와 지부·출장소 사무실 확보, 각종 서식, 증서, 집기마련과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업무인수 등을 추진 1978년이 저물어 가는 연말에 이르러서는 현판식 준비까지 마치게 되었고 1979년 1월 1일부터 어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4일 김기영 회장, 신태영 수산청장, 장봉환

시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특수법인 한국어선협회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어선협회 설립준비위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당시 소속지위).

위원장 주홍장(수산청 차장)
위원 손정식(수산청 기획관리관)
김응수(수산청 어정국장)
장봉환(수산청 시설국장)
최익성(수산청 생산국장)
조영제(수협중앙회 부회장)
박상훈(한국선급협회 이사)

* 당시 현판식은 1월 4일이었으나 법인설립등기는 1월 24일에 필하였으므로 이후 한국어선협회의 설립기념일을 매년 1월 24일로 정하였음.

2. 임무 및 기능

협회 정관 제1조(목적)에 “본회는 어선과 그 설비에 관한 정부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어선

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사업)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 선박국적증서 및 선적증서의 검인업무의 대행
-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업무의 대행
- 어선과 그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 어선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제조시설 승인에 관한 사항
- 어선용품에 대한 검정업무의 대행
-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표준어선의 설계심의 보급
- 어선용 재료 및 설비의 시험연구
- 어선의 설계·건조감리 및 감정
- 회지 및 어선에 관한 도서 발간
-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가 위탁하는 어선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정부의 위촉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 되어 있다.

3. 조 직

협회의 조직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발족 당시는 8개지부와 3개 출장소였으나 1979년 7월

1일 지부 1개소를 증설하고 1980년 12월 1일 분소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981년 3월 1일 분소 4개소를 증설하여 부산, 인천 등 주요 항포구 20개소에 지부·출장소, 분소를 설치하여 지역어민의 편익증진과 업무증가에 대처하여 왔다.

본부에는 회장을 정점으로 전무, 총무, 검사, 기술담당이사, 비상임감사 1인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로는 기획관리부, 총무부, 검사관리부, 기술개발부, 감사실을 두고 있고 회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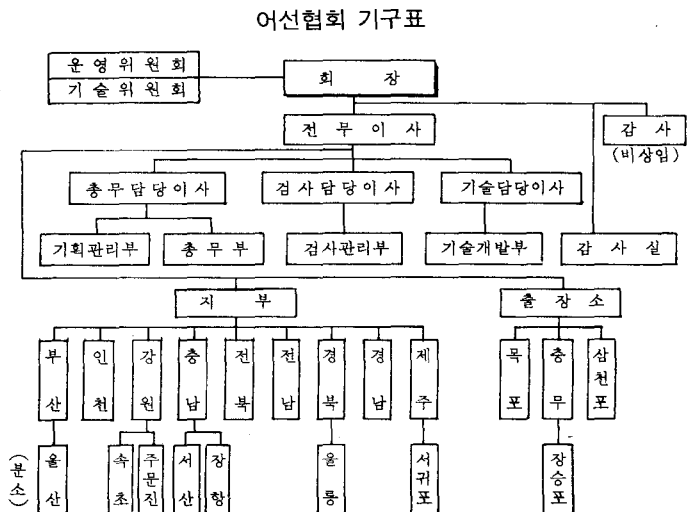
4. 인 원

설립준비 당시 1차로 검사원 45명과 행정원 15명을 선발하여 각 지방별로 배치하여 업무인수 및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토록 하고 설립년도인 1979년에는 총원 122명으로 구성하여 모든 업무를 집행토록 하였으나 점차 지방조직의 확대와 업무개발에 따라 현재는 임원 5명, 행정원 36명, 검사·기술원 123명, 기능직 56명으로 총 2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기술직원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선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자격자로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총원하고 있으며, 직원 자질향상을 위하여는 매년 자체교육은 물론 국제해사대학 또는 선진조선국에 연수를 실시, 기술을 연마하고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회의에도 매년 참석하여 국제간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5. 예 산

초기예산은 364백만원(국고 239백만원, 자담 335백만원)



으로 출발하여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 수협으로부터 연근해 육성자금 32백만원을 차입까지 하였다. 본부사무실도 당시로서는 비교적 임차료가 저렴한 강남 반포동에 최소의 평수를 확보하고 지부·출장소는 수협으로부터 회원조합사무실의 일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애받아 해결하는 실정이었다.

협회의 재원은 국고지원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에 있어서 어민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길은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이지만 국가재정형편상 국고지원증액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자체수입재원도 어민부담을 감안 일시에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언제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만 예산규모 면에서는 업무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 및 인원증가로 인한 소요 예산 증대는 그동안 어선설계, 감리용역 등 기술개발업무를 통한 자체수입을 적극 개발하고 어선척수 증가에 따른 수수료증대와 국고지원으로 충당하여온 바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2,166백만원(국고 1,161백만원, 자담 1,005백만원)으로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이 중 인건비가 1,704백만원으로서 전체 규모의 약 80%를 차지하고 나머지도 사무관리비, 제세공과금, 자산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어 기술개발 및 직원복지 향상에 있어서는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6. 당면과제

앞에서 협회의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선 협회의 명칭만 해도 설립초기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어선을 가진 선주들의 모임인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 공익단체로서의 임무가 내포된 명칭으로 검토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면에 있어서도 명실공히 어선근대화를 위한 기술단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검사경비 충당을 위해 검사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제세공과금 인상과 같이 어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김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몇백원으로는 검사를 위한 출장교통비도 되지 않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며, 이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어민부담을 고려 단계적인 현실화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예산관련 사항으로 직원들의 임용자격 기준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상당한 수준의 고급기술인력을 채용하면서도 처우면에서는 유사기관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고 후생복지제도가 미미한 실정으로서 사기저하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 하겠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은 정부지원과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업계의 협조덕분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해난사고 예방과 어선근대화에 필요한 단체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협회의 임직원들은 합심하여 산재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복지어촌 건설과 조국근대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손길마다 자연보호

발길마다 금수강산